□초 록 8□

음운 환경이 비음치에 미치는 영향

김민정*, 심현섭
연세대학교 언어병리학 협동과정,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학과 언어병리학 협동과정

Nasometer를 통해 얻은 비음치(nasalance score)는 객관적일 뿐만 아니라 훈련된 언어임상가가 청지각적으로 판단한 비음도와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공명장애 진단의 보조자료로 유용하다. 그러나 비음치는 자극어에 따라 다양한 수치를 보이므로 공명장애의 진단을 위해서는 타당하고 신비로운 자극어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음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음운 환경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무의미 1음절어와 유의미 문장 자극어 중 어떤 것이 더 신뢰로운 지 알아보아, 비음치 측적을 위한 자극어 개발에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정상 성인 24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음운 환경을 갖은 18개 문장의 비음치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 결과를 얻었다. 첫째, 비음의 비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이/ 모음의 비율이 높을수록 비음치가 높았다. 둘째, 구강 자음의 조음 방법이나 위치는 인접한 모음의 비음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비음치는 문장 간에 높은 상관 관계가 있었지만, 음절 간의 상관은 적었다.
위와 같은 결과는 비음치 측정을 위한 자극어를 개발할 때, 비음의 비율 뿐만 아니라 /이/ 모음의 비율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또한 무의미 1음절어보다 문장 자극어가 더 신뢰로울 것임을 시사한다.